

보도시점 2025. 5. 15.(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5. 15.(목)

##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추진

- 세계기상기구와 전문성 교류 확대 및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개도국 등의 물재해 대응역량 강화에 공동 노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세계자연보전연맹, 람사르협약 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로 아시아 지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중립에 기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람사르협약 사무국, 스위스 연방환경청과 협력 확대를 위한 대표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스위스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 ※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1950년 설립,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기상·기후 및 수자원 분야에 관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에는 물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수문의회(Hydrological Assembly)를 설치, 각국의 홍수, 가뭄 등 물 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정보교류를 주도함
- ※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1948년 스위스 글랑에서 설립된 세계 170여 개국에서 약 17,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最古),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단체임
- ※ 람사르협약은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기 위해 1971년에 채택된 국제환경협약,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음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기상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기상모형(디지털트윈) 등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기술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제회의\*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인 스위스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25.6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25.7월), 2025 세계자연보전총회(WCC)(’25.10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5.11월) 등

이 차관은 5월 14일 세계기상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에서 열린 셀레스테 사울로(Celeste Sau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세계기상기구의 수문\*·수자원분야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홍수예보, 기상모형(디지털트윈) 등 우리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수문(水文)은 물의 분포, 순환, 이동 그리고 물과 지표, 대기, 식생(植生)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강수량, 수위, 유량, 증발산량, 지하수량, 홍수 및 갈수 등 유출(流出)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한 세계기상기구와의 상호 기술 및 정보 협력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 수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간의 수문분야 교육 및 교류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과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각 기관의 대표로 참여해 홍수 및 가뭄 관리 등 수문·수자원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한 한국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며 특히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같은 한국의 첨단기술이 극한 기후로 고통받는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세계기상기구와 수문조사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대표단은 협약 체결 전날인 5월 13일 스위스 글랑에 있는 생물다양성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을 방문하여 그레텔 아귤라(Grethel Aguilar) IUCN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차관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연공존지역(OECM)\*, 자연자본공시(TNFD)\*\* 등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진출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자연공존지역(OECM) :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

\*\* 자연자본공시(TEND) :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그레텔 아귤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은 향후 아시아, 특히 한국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을 적극 도입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주요 협력국으로 활동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도시인증제의 성과를 알리고, 보호지역 확대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30x30\* 얼라이언스’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무손다 뭄바(Musonda Mumba)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습지도시인증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며,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올해 7월 개최될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30x30\* 얼라이언스 :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전 국토 훼손 지역의 30%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기업, 민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또한 이 차관은 5월 12일 스위스 연방환경청사(스위스 베른 소재)에서 펠릭스 베어틀리(Felix Wertli) 스위스 연방환경청 환경대사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야심찬 2035 국가감축계획(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7차 보고서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베어틀리 환경대사는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를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바, 이에 이 차관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였던 고위급 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도 아시아 지역 주요 고위급 참석이 예정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등에서 플라스틱협약의 타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계기상기구와의 수문·수자원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범지구적 물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기상기구가 보유한 방대한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재해 대응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은 계속될 것인 바, 한국의 그린리더십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세계기상기구(WMO) 개요  
 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개요  
 3. 람사르협약 개요  
 4. 대표단 활동사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국제환경협약팀	책임자	과 장	강부영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한상완 (044-201-6608)
담당 부서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651)
		담당자	사무관	조하연 (044-201-7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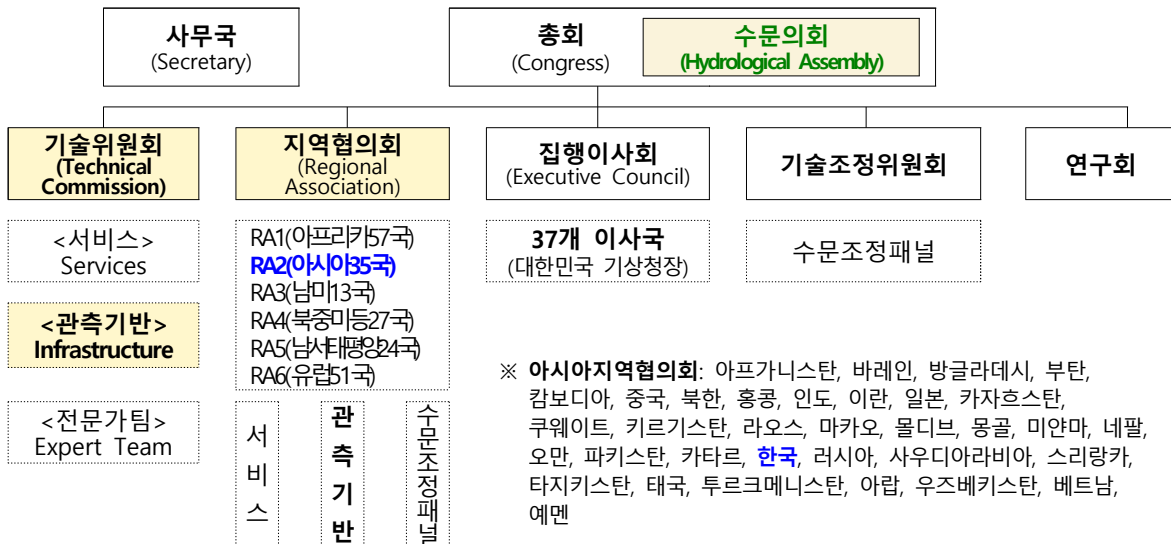


□ **세계기상기구 개요**

- (공식명칭)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설립년도) 1950년 \*1873 IMO 근거, 1950 설립, 1951 UN 전문기구화
- (목적) 세계 기상, 기후, 수문 및 지구물리 관측망 구축, 관련 자료 표준화, 교환, 처리 관련 협력, 기술의 이전, 훈련 및 연구 지원
- (회원국)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참가,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 \* 대한민국은 1956년 2월 15일에 **68번째**로 가입(북한은 1975년 129번째 가입)

□ **조직 구성**

- 총회(수문의회), 집행이사회, 연구회, 기술위원회(서비스, 관측기반), 수문 조정패널, 지역협의회 등으로 조직 구성



- '19년 WMO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수문활동을 총괄하는 수문의회 (Hydrological Assembly) 신설

\* 대한민국 수문분야 자문역할로 수문의회 수문자문관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담당

## 붙임 2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개요

□ (기관개요) 1948년 스위스 글랑에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제 환경단체(세계 50여개 사무소 및 1,000여명 직원)

○ (구성) 세계 170여개국에서 98개 국가회원과 126개 정부기관 및 약 1,200개 이상의 NGO가 가입, 17,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

< IUCN 회원기관 현황 및 우리나라 가입 현황 >

구분	전체 회원 수	우리나라 회원 수
국가회원	98	1 (환경부)
정부기관회원	126	6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해수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등)
NGO 회원	약 1,200	8 (한국습지학회, 한국생태학회 등)

○ (기능) △ 자연보전의 세계적 기준 마련, △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전세계 수백개 프로젝트, △ 정부·비정부 회원들을 통한 국제 환경정책·법 분야 영향력 행사 등

○ (위상)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영향력이 증대된 세계 최대 환경단체  
- 세계유산협약 공동 발의(스톡홀름 회의, '72년), CITES와 람사르협약 창설 기여, 람사르협약 사무국 운영 등으로 국제적 지위 확보

### <IUCN 핵심사업 2021-2024>

PEOPLE	성평등,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권리 및 역할, 청년 역할 강화, 균등한 천연자원 관리 등
LAND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복원, 생물종 보전 및 복원, 보호지역 및 OECM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도시계획 및 관리에서 NbS 적용 등
WATER	물관리 및 보호, 담수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복원, 수자원 관리 및 투자 개선, 균등한 수자원 제공 등
OCEANS	해양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 강화, 해양 오염·폐기물 감소, 불법 남획 및 자원채취 중지 등
CLIMATE	시급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NbS를 통한 기후변화 감소 및 적응 등

※ 차기 IUCN 핵심사업은 2025 세계자연보전총회(25.10.9~10.15, 아부다비)에서 결정예정

**□ 협약 명칭**

-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  
※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Ramsar Convention)

**□ 채택 배경 · 목적**

- 1960년대 유럽에서의 대규모 습지 소실 발생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 제기
-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고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를 보호

**□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채택/발효 : '71.2.2(이란의 Ramsar에서 채택)/'75.12.21
- 우리나라 가입/비준 : '97.3.28('97.7.28 발효)
- '25.5월 기준 당사국 : 172개국
- 현재 전세계 2,531개소(2,579,091.3km<sup>2</sup>) 람사르습지 지정

**□ 우리나라 주요활동 및 이행사항**

- '25년 5월 기준 총 26개(약 203.189km<sup>2</sup>)의 람사르 습지 등록 및 총 9개 습지도시 인증
- 제10차 당사국총회('08.10, 창원) 개최국으로서 총회를 주재
- 결의문 6개 발의 및 채택 주도  
※ X.3 창원선언문, X.31 논습지 생물다양성, XII.10 습지도시인증제, XIII.17 습지 생태계 간편평가, XIV.10 습지도시인증제 개선, XIV.13 공교육에서의 습지교육

## **붙임 4**    **대표단 활동사진**

### **□ 스위스 연방환경청 환경대사와 양자면담 중인 이 차관(5.12)**



###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중인 이 차관(5.13)**



□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중인 이 차관(5.13)



□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중인 이 차관(5.14)



□ 환경부와 세계기상기구(WMO)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5.14)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WMO)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5.14)

